

90년대 주거단지 현상설계 당선안의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ypes of Unit Plan in Prizewinners of Multi-Family Housing Competitions in 1990s

길형진* / Kim, Hyung-Jin

박찬규**/ Park, Chan-Kyu

권선국***/ Kwon, Sun-Kuk

Abstract

Owing to the mass-housing policies of high-density and high-rise,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in Korea have come to be uniform and monotonous. Nevertheless, the design competition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1980s have played significant roles in developing the fresh ideas and concepts in housing design.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ideas proposed in competitions until now in order to spread them into other housing developmen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classified the types of unit plan and analyzed their design characteristics in the proposals of housing design competitions in 1990s.

키워드 : 현상설계 당선안, 단위 평면, 유형, 디자인 특성, 주거단지

1. 서론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도시화 및 인구 집중 현상에 의해 도시 주택난이 야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본격적으로 건설되면서 우리의 주거 문화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당국의 정책도 역시 단기간에 많은 양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 부족을 해소하고자 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왔다. 고층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물량 위주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해 그러한 측면들이 외면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몇 개의 공영 아파트 단지가 처음으로 현상 설계 경기 방식에 의해 실현되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새로운 설계 기법들이 시도됨으로써, 우리의 주거 단지는 과거의 한정된 패턴에서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었으며, 고층 주거 단지내 평면 패턴 및 계획 수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의 주거 단지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설계 기법과 최근의 동향을 현상 설계 당선안들을 통해서 조명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1990년 이후에 실시된 현상 설계 경기의 당선작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주거 단지에 적용된 단위 평면의 유형과 설계 특성을 파악하고 정리함으로써 향후 주거 단지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계획 방향을 탐색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0~1999년 사이에 실시된 국내의 고층 주거 단지 설계 경기에서 당선된 작품 중 총 66개의 단지를 대상으로 각 사례들에서 나타난 단위 평면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각각의 설계 특성을 정리하였다.

2. 단위 주호별 특성 분석

2.1. 10평 미만의 주호(7평형, 9평형)

90년대 현상 설계 당선안에서 나타난 10평 미만의 규모는 크게 7평형과 9평형으로 나누어진다. 이것들은 주공에서 공급한 평면들 중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형태이며, 최소한의 주생활을 위해 공급된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모의 단위 평면들에서는 일반형 이외의 변화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즉 평면 전체의 실 구성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거의 없으며 오로지 내부 공간의 설계 기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7평형과 9평형의 단위 평면 특징은 남측 전면을 1bay, 북측

* 정회원,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정회원,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충청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후면을 2bay로 나누어 전면에 거실 겸 침실을 두고, 후면에 1개의 방과 현관, DK를 구성한 형식이 대표적이며 거실겸 침실과 북측 방 사이에 욕실을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1962년~1990년까지 공영 아파트 단위 평면이 전면에 2개의 방과 후면에 화장실과 부엌이 위치하여 외기에 면하는 형태가 일반형¹⁾이었던 것과는 다른 패턴이다.

<표 1> 10평 미만의 일반적 평면형 및 사례

	7평	9평
평면구성(일반형)		
사례		

R:침실, L:거실, B:화장실 및 욕실, D:식당, K: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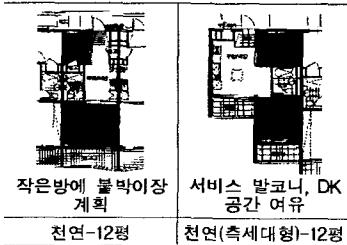
내부 동선 체계에 있어서 7평(8사례중 8사례), 9평(7사례중 7사례)형 모두 편복도형식이 가장 큰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소형 아파트의 경우 편복도 형식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주동 형식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추세는 15평형까지 계속된다. 또한 거실겸 침실과 DK를 구분짓는 경계가 대부분 미닫이 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면에 위치한 침실을 거실로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10평이상 20평 미만의 주호

(1) 10평이상 15평 미만

10평이상 15평 미만의 규모는 크게 10평형, 12평형, 13평형으로 구분되는데, 그것들의 일반적 특징은 먼저 남측 전면에 거실겸 침실을 두고, 북측 후면에 1개의 방과 현관, DK를 구성한 형식이 가장 일반적인 패턴으로 2개의 침실(46사례중 42사례)이 일반적이다. 특이한 점은, 7평형과 9평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원룸(one room)형이 90년대 후반기 이르러 10평과 12평형에서 출현했다는 점인데, 이 역시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와 수요자 중심의 시장 변화에 따른 다양한 차별화 전략의 결과라 판단된다.

또한 10평 미만의 규모에서는 불박이 장이 현관, 욕실 앞, 발코니에 계획된 반면 10평 이상의 규모에서는 작은 방(서울천연)에도 그것들이 계획되었다. 내부 동선 체계는 거의 모든 사례(46사례 중 45사례)가 편복도 형식이었으나, 12평형의 일부



1)김수암, 박용환, 집합주택 단위 평면 고정화 현상에 관한 연구(II)-주공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8권6호 통권44호, 1992년 6월

사례(신투리A)에서 탑상형의 홀형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90년대 이후 점차 홀형 등과 같은 탑상형의 형태가 출현하여 일반화²⁾되기 시작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2> 10평이상 15평미만의 일반적 평면형 및 사례

	10평	12평	13평
평면 구성(일반형)			
사례			

(2) 15평이상 20평 미만(15평형, 18평형)

15평형의 단위 평면 특징은 남측 전면을 2bay, 북측 후면을 2bay로 나누어, 전면에 거실과 주침실을 두고, 후면에 1개의 침실과 현관, DK를 구성한 형식이 일반적이다. 실 구성에 있어서는 1개의 침실이 증가한 것 이외에는 15평 미만의 평면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나, 일반형에도 다용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2L/DK(3DK)형이(45사례중 23사례) 2LDK형(21사례)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15평까지는 전용 거실보다는 때에 따라 거실과 침실로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18평형의 단위 평면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남측과 북측을 2 bay로 나누어, 전면에 LDK와 주침실을 두고 북측에 2개의 방과 현관으로 구성된 G18-1과 전면에 거실과 주 침실을 두고 후면에 방과 DK, 현관으로 계획된 G18-2형, 마지막으로 남측 2 bay, 북측 3 bay로 나누어 전면에 거실과 주 침실을 그리고 후면에 2개의 방과 DK를 구성한 G18-3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18평형에서의 평면 구성 방식은 3LDK 형이(47사례중 34사례) 대다수이며, 그 외의 방식이 소수 사용되고 있다. 이 유형에서 비로소 3개의 방이 침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 15평이상 20평미만의 일반적 평면형 및 사례

	15평	18평
평면 구성		
사례		

	G18-1	G18-2	G18-3
	G18-1	G18-2	G18-3

2)김형진, 박찬규, 고충 주거 단지의 주동형태와 배치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12호 통권146호, 2000년 12월

그러나 이것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G18-1(15사례 중 11사례)과 G18-3(22사례 중 15사례)은 90년대 후반기에 두드러졌으며, G18-2(10사례 중 9사례)는 90년대 전반기에 비교적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90년대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2LDK보다는 3LDK가 더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부 동선 방식에 있어서도 편복도형 외에 계단실형(47사례 중 19사례)과 홀형(47사례 중 4사례)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코어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평면형 역시 다양하게 계획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발코니도 평면 계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는데, 발코니 수에 있어서도 2개 이상(47사례 중 26사례) 계획된 사례가 우세하였으며, 곡선의 발코니를 이용하여 주동 전체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중촌)

무엇보다 18평형에 나타난 특징은 4 bay형 테라스 하우스(서울천연)가 많이 등장하였고, life cycle에 대응하기 위한 가변형 주거 개발이 이루어졌으며(광주화정, 양산물금), 변화형을 3 bay로 계획함으로 모든 실이 외기에 면하는 장점을 갖도록 설계하였다는 점이다.(화정, 성남2)

또한 욕실이 2개인 주호가 많아졌는데 기존의 연구³에 의하면 1988년 이후 85~100m²(25평~30평)의 규모에서 2개의 욕실이 적용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1990년대 현상 설계에서는 그 규모가 하향하여 60m²(18평)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20평 이상의 주호(22, 25, 28, 32, 34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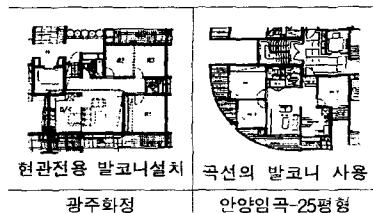
20평 이상의 규모는 22, 25, 28, 32, 34평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25평이 가장 일반적인 평면 구성인데 그것의 전형적인 평면 구성 패턴은 3LDK 형이 일반적(35사례 중 25사례)이며 그 외에 2LDK, 2LDK, 4LDK 형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4> 20평이상의 일반적 평면형 및 사례

	22평	25평	28평	32평	34평
평면구성(일반형)					
사례					

3)김수암, 김상호, 공동주택의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한 설계 및 공급 체계 개선방안 연구(II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6.12

3R, L, D, K, 2B로 구성되어 있는 25평형의 단위 평면 구성은, 남측 전면에 거실과 주침실을 두고, 북측 후면에 2개의 침실과 DK를 두는 형상이 일반적이다. 또한 일반형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점은 남측면의 주침실과 북측면의 방 사이에 2개의 욕실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인 특징으로는 DK를 거실에 인접하여 설치하기도 하고(상갈A), 욕실에 closet을 계획하기도 하며, 발코니에 빗마루를 설치함으로 옥내의 보조공간 역할(화정)을 하도록 계획한 것이다. 또한 광주화정 지구는 전면 오픈된 출입구를 계획함으로 현관 출입시 담담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현관 전면에 각 세대별 발코니를 설치하여 장독대 설치 및 자전거 보관등의 여유공간 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탑상형 주동의 경우, 18평형에서와 같이 곡선의 발코니를 이용하여 주동 전체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한 사례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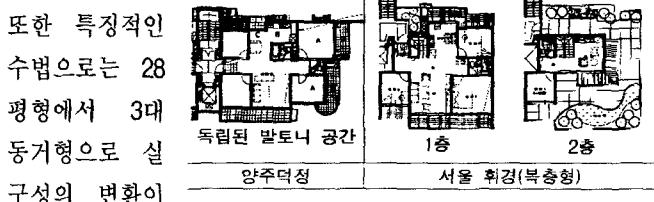
곡선의 발코니 사용

광주화정

안양임곡-25평형

(안양임곡)

25평 이상의 단위 평면 즉, 28, 32, 34평형의 특징으로는 4R, L, D, K, 2B 가 일반적인 구성패턴으로 4개의 방이 있으며 R4도 침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면적(9m²이상)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특징적인 수법으로는 28평형에서 3대 동거형으로 실내 독립된 발코니 공간을 확보한 사례로 구조의 변환이 가능한 평면이 나타났으며, 코너형의 경우 각실의 보조 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독립된 발코니 공간을 확보한 사례도 나타났다.(양주덕정) 34평형에서는 지붕층을 이용한 복층형 주호 계획 수법도 나타났는데, 상부층에는 채소밭과 옥상정원을 노인방과 함께 구성함으로 다양한 거주자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화정)

4. 현상설계 당선안에 나타난 규모별 평면유형의 비교분석

4.1. 규모별 일반적 특성 비교

면적대별로 고정화된 평면을 살펴보면, 15평 미만에서는 2DK(또는 1L/DK) 형이 그리고 15평형은 2LDK, 18평에서는 3LDK 형이 주종을 이룬다. 반면, 20평 이상에서는 3LDK(22, 25평형), 4LDK(28평 이상) 형이 가장 전형적인 평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15평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 보다 큰 규모에

서 LDK 형이 확립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980년대부터 정착된 LDK형이 199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표 5> 규모별 일반적 특성 분석

	평면구성	내부동선	침실 수	bay 수		발코니수	시기
				남	북		
7평	1DK	편복도	2	1	2	1	90년 전반
9평	2DK	편복도	2	1	2	1	90년 전반
10평	2DK	편복도	2	1	2	1	90년 전반
12평	2DK	편복도	2	1	2	1	90년 전반
13평	2DK	편복도	2	1/2	1/2	1/2	90년 후반
15평	2DK	편복도	2	2	2	1	90년 후반
18평	3LDK	계단실	3	3	2/3	1	90년 후반
22평	3LDK	편복도	3	3	3	3	90년 후반
25평	3LDK	계단실	3	3	3	3	90년 후반
28평	4LDK	계단실	4	3	4	4	90년 후반
32평	4LDK	계단실	4	3	3	3	90년 후반
34평	4LDK	계단실	4	3	3	3	90년 후반

전용면적 15평을 기준으로 하여, 전용면적이 증가할수록 내부동선체계가 편복도형에서 계단실형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용면적과 출입방식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15평 이상에서는 1bay(남측)에서 2bay로, 18평 이상에서는 2bay에서 3bay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발코니수도 20평을 기준으로 1개에서 3개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12평 이하의 공급은 90년대 전반기에 우세하였고 그것보다 큰 면적은 90년대 후반기에 많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90년대 전반기엔 소형 평수 위주의 공급이 그리고 90년대 후반기엔 중규모 이상의 다양한 규모의 평수가 비교적 많이 공급된 것인데, 이것은 이 시기에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양보다는 삶의 질이 보다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 규모가 증가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2. 규모별 실 면적 비교

주호의 면적과 구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각 실의 면적과 개수 등을 들 수 있다. 조사 결과, 전용면적 15평 미만에서는 2개의 침실이 그리고 15평 이상 25평 미만에서는 3개, 그 이상에서는 4개의 침실을 확보하는 예가 많았다. 그러나 15~20평 미만의 경우 침실 3은 면적이 너무 협소($7m^2$ 미만)하여 침실의 기능이 어려우며 타 용도로 사용되기 쉽도록 계획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면적의 증가에 따라 각 실의 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실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안방의 경우 10~15평($13.14m^2$)보다 15~20평($12.09m^2$) 규모에서 실의 크기가 더 감소하는 것으

<표 6> 규모별 실 면적 비교

	안방	침실2	침실3	침실4	거실	주방, 식당	욕실1	욕실2
7평	10.3	5.04					4.94	2.25
9평	11.73	5.56					6.87	4.41
10평 미만	11.25	5.38					6.23	3.69
10평	12.0	6.15					8.07	3.65
12평	13.99	7.39					9.62	4.38
13평	13.42	9.12					10.34	3.94
10~15평 미만	13.43	7.30					9.29	4.14
15평	11.33	7.70	6.74		12.23	10.72	3.83	
18-1	13.08	7.82	6.66		15.03	8.15	4.17	
18-2	13.68	9.84			12.57	12.49	4.13	
18-3	12.49	7.33	6.62		17.59	8.45	3.94	2.26
18평	12.81	7.79	6.64		16.22	8.86	4.02	2.26
15~20평 미만	12.09	6.92	6.64		14.26	9.77	3.93	2.26
22평	14.05	7.52	9.26		14.05	13.18	1.98	1.76
25평	15.87	10.26	9.40	8.71	21.68	13.13	4.06	2.75
28평	14.59	10.89	9.87	9.04	26.6	13.64	3.88	2.46
32평	15.74	14.78	10.04	10.37	31.7	17.48	3.88	2.33
34평	17.82	13.50	11.18	10.13	33.83	14.02	4.3	2.97
20평 이상	16.05	10.92	9.77	9.65	24.20	13.47	4.01	2.71

로 나타났다. 이것은 방의 수가 증가함으로 인해 각 실의 면적이 부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 실의 면적은 증가한 것이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방의 개수가 증가한 부분(15평~20평 미만)에서 욕실의 면적이 줄어든 것인데, 이는 20평 이하의 소형 평수의 경우, 욕실의 면적이 방의 개수와 어느정도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4.3. 규모별 각실의 면적비 비교

안방만의 크기는 단위 평면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크지만, 전체 면적에서 안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규모에서 더욱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전용면적당 침실 전체 면적비는 15평 이하에서는 50% 이상, 그 이상의 규모에서는 50% 미만으로 그 구성비가 낮아지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25평형에서 다시 그 구성비가 53.5%로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이는 25평형에서 침실수가 4개로 증가하기 때문이며, 특히 각 침실의 규모를 일정 규모($9m^2$) 이상으로 그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표 7> 규모별 각실의 면적비

단위(%)

	안방	침실2	침실3	침실4	거실	주방, 식당	욕실1	욕실2
7평	44.6	21.8					21.4	9.7
9평	39.4	18.7					23.1	14.8
10평	36.3	18.6					24.4	11.0
12평	35.2	18.6					24.2	11.0
13평	31.2	21.2					24.1	9.2
15평	22.8	15.5	13.6		24.7	21.6	7.7	
18-1	22.0	13.1	11.2		25.3	13.7	7.0	
18-2	23.0	16.5			21.1	21.0	6.9	
18-3	21.0	12.3	11.1		29.6	14.2	6.6	3.8
18평	21.5	13.1	11.2		27.3	14.9	6.8	3.8
22평	19.3	10.3	12.7		19.3	18.1	2.7	2.4
25평	19.2	12.4	11.4	10.5	26.2	15.9	4.9	3.3
28평	15.8	11.8	10.7	9.8	28.7	14.7	4.2	2.7
32평	14.9	14.0	9.5	9.8	30.0	16.5	3.7	2.2
34평	15.9	12.0	9.9	9.0	30.1	12.5	3.8	2.6

4) 김선중·지은경, 아파트의 단위 평면 구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I),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3권 2호, 1985년 12월

거실의 면적비는 비교적 단위 면적에 비례하지만, 그 비율이 일정하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25평 이하의 규모에서 거실 면적비는 25% 내외를 보이게 되는데 비해, 그 이상의 규모에서는 30% 내외의 구성비를 보여 중규모 아파트의 거실 부담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면적 15평 미만에서는 독립된 거실을 갖출 수 없거나 가변적 거실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면적이 커질수록 식당, 주방의 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식당 주방의 면적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평 이하의 면적에서는 20% 이상이던 것이 그 이상의 면적에서 15% 내외로 그 구성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욕실의 전체 면적 구성비는 면적이 점차 증가하면서 감소하지만, 18-3형에서 갑자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18평에서부터 2개의 욕실 이상을 구성하기 때문이며, 그 이상의 면적으로 갈수록 점차 구성비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1990-1999년 사이에 실시된 공영아파트 현상 설계 당선안에 나타난 단위 평면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90년대에 새롭게 적용된 기법들과 그 경향들을 조명해 보았다.

면적대별로 고정화된 평면을 살펴보면, 15평 미만에서는 2DK(또는 1L/DK) 형이 그리고 15평형은 2LDK, 18평에서는 3LDK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반면, 20평 이상에서는 3LDK(22,25평형), 4LDK(28평이상)형이 가장 전형적인 평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15평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보다 큰 규모에서 LDK 형이 확립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전용면적과 출입 방식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용면적 15평을 기준으로 하여, 전용면적이 증가할수록 내부 동선 체계가 편복도형에서 계단실형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또한 15평이상에서는 1bay(남측)에서 2bay로, 18평 이상에서는 2bay에서 3bay로 증가하고 있었다. 발코니수도 20평을 기준으로 1개에서 3개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실의 보조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독립된 발코니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발코니의 역할도 다양화되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코니에는 단순한 기능적 측면 이상으로 미적 요소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즉, 곡선의 발코니를 이용하여 주동 전체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자 한 사례가 다수 출현하였다.

또한 90년대에 이르러 life cycle에 대응하고자 가변형 평면이 다수 출현하였으며, 모든 실이 외기에 면하는 3bay형 평면, 4bay 테라스 하우스, 지붕층을 이용한 복층형 아파트, 원룸형 평면 등도 출현하였다. 이 밖에도 현관 전면에 각 세대별 발코니를 설치하여, 출입시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계단실과 주호 내부의 전이 공간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계획 개념들이 시도되고 있었다. 이것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주자의 요구가 다변화되는등 경제성 못지 않게 주거의 질과 다양성도 점차 중요시됨으로 주 요구의 개별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평면 개발로 입주자의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거 단지 설계에서 현상 설계는 일반적인 설계과정에서는 시도할수 없었던 다양한 평면 유형을 개발하는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거주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설계 경기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지금까지의 성과가 일반적인 주거단지 설계 과정에 신속하게 파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형진, 90년대 공영 아파트 설계 경기 당선안의 설계 수법 및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 석사 논문, 1999
2. 김형진, 박찬규, 고층 주거 단지의 주동 형태와 배치 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6권 12호, 2000년 12월
3. 김수암, 김상호, 공동 주택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설계 및 공급 체계 개선방안 연구(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6,12
4. 김수암, 박용환, 집합주택 단위 평면의 고정화 현상에 관한 연구(2),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8권 6호, 통권 44호, 1992년6월
5. 대한건축학회, 건축학전서3, 주거론, 기문당, 1997
6. 대한주택공사, 단지계획과정 1995-1998, 1996-1999
7. 한국의 현대 건축, 공동 주택, 산업도서출판공사, 1998
8. 건축설계경기시리즈4, 아파트공동주택, 건축도서출판공사, 1995